

조선소설에 나타난 父의 양상과 그 세계관

〈뉴효공 선행록〉 〈뉴씨삼대록〉을 중심으로

宋 晟 旭*

1. 서 론

본고는 조선조 소설에 나타나는 父의 위상과 그것에 따른 창작의식을 고찰하려는 연구의 일환으로 쓰여진다. 조선조 소설의 문맥은 상당수가 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며, 家系小說이라고 그 유형이 분류될 수 있는 일련의 작품 역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¹⁾ 그리고 가문의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父의 문제를 다룬 연구 역시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孝의 문제나 父子對立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얼마간의 연구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이 역시 가문의식과 관련된 소설에서의 父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연구는 아니다.²⁾

* 석사과정 졸업

- 1) 이 부분에 대한 선편은 李樹鳳, 家門小說研究(형설출판사, 1978)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海東李氏三代錄〉이라는 實記소설을 위주로, 또 작품 내적인 가문의식보다는 사회사적인 배경에서의 가문의식을 위주로 논의물 전개시키고 있다. 그리고 成賢慶, “조선소설과 가문”, 인문연구논집 20, 서강대인문과학연구소(1989)에서는 일대기 소설을 중심으로 소설과 가문과의 연관성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 2) 金一烈, 朝鮮朝小說의 構造와 意味(형설출판사, 1984) pp.64-72, pp.175-319. 朴英姬, 〈양풍전〉에 나타난 父子對立 研究, 이화여대석사(1988) 등에서 소설에 나타난 부의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이는 부자의 대립에 초점

조선조에 있어서 소설이 문학사의 표면에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18세기 무렵이라면 이미 이때는 가문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이 고조되는 시기이다. 그 이전에도 가문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혈연공동체 혹은 가족의 확대개념으로서의 가문이 아니라 가문이 사회구조를 결정지우는 일종의 정치집단의 실질적 구성요소로까지 발전하는 시기가 바로 이 무렵인 것이다.³⁾ 족보의 형식이나 상속제도, 친족의 범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7세기부터 비로소 부계혈연에 입각한 가문조직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당시의 사대부들은 이를 자신의 세력유지를 위한 발판으로 삼게되었다.⁴⁾ 이에 따라 가문조직은 자기 가문 마다의 특수한 규율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 이를 통해 가문구성원들에 대한 통제 및 다른 가문과의 배타성을 강화하였다. 17세기 무렵부터 이러한 가문의식이 강조되는 것에는 주자주의 이념에 보다 철저히 하였던 사림들의 정계로의 대거 진출, 지방 사족들의 중앙권력에 대한 경계 나아가 정파와 가문의 친연성이라는 정치적 역학이 그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문 의식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것이 한 가문을 통솔하는 권력을 지닌 家長 즉 父의 문제이다. 아울러 당사가 완강한 가부장제 사회였던 만큼 이 父의 문제는 당시 사람들의 의식을 탐구하는 하나의 관건이 된다.

본고가 소설에 나타난 가문의식과 父의 문제에 관심을 지니는 이유도

을 맞추어 소설의 근대성을 논하고 있다. 한편 소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徐大錫, 〈칠성풀이〉 연구-신화적 성격과 서사시적 서술구조-, 震檀學報 65(1988)에서는 칠성풀이가 부부관계와 부자관계 중 부자관계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에 주목하고 이것은 한국의 가족구조가 부계혈연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천한 사실과 관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사할 만하다.

- 3) 17세기 이후 봉당정치적 질서가 무너지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집단이 분화되어 그 규모가 작아져서 가문으로 굳어졌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주장의 타당성을 뒤로 미루더라도 당시의 주요정치집단에 대한 통제에 따르면 19세기 전반에는 가문이 곧 정치적 실질집단의 구성요소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정치사 상권, 한국역사연구회(1990) pp.242-253 참조.
- 4) 이에 대해서는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研究(일지사, 1983)과 宋俊浩, 朝鮮社會史研究(일조각, 1989)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뉴효공선행록> <뉴씨삼대록> 연작⁵⁾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 작품을 토대로 父의 양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 작품에서 강조하고 있는 父의 모습을 통해 그 정치관 및 창작의식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2. 繼後萬藤의 의미와 父權의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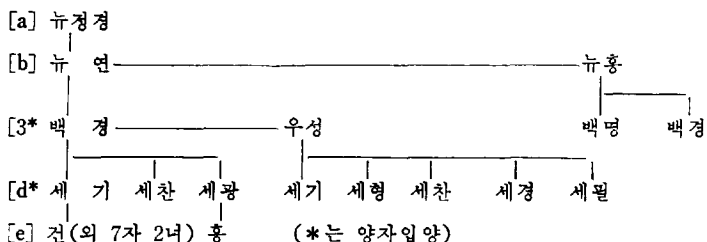
<뉴효공선행록> <뉴씨삼대록>(이하 <선행록> <삼대록>)으로 통칭)은 뉴백운의 후에 뉴정경에서부터 시작하여 뉴건에 이르는 뉴씨家 5대에 걸친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선행록>은 뉴정경에서부터 시작하여 뉴연, 뉴우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삼대록>은 뉴우성에서 세기, 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각기 서술하고 있다. 특히 <선행록>의 경우는 형제갈등과 부자갈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계후갈등이 서사적 진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우선 간략하게 작품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자.

<선행록>에서 뉴정경에게는 두 아들 뉴연과 뉴홍이 있는데, 연과 홍의 갈등과 아버지 정경과 연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작품이 서술되고 있다. 次子인 홍은 그 성격이 편벽되고 暗險하여 항상 장자 연의 孝友寬仁함을 꺼려하고, 때때로 아버지 정경에게 연을 참소한다. 이 홍의 참소로 정경이 연을 내심 못마땅해 하고 있을 즈음 금오 뇨정과 홍이 결탁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금오 뇨정은 진사강형수의 처를 겁탈하려다 강형수의 처가 자살하는 사건을 유발하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홍을 매수한다. 이에 홍은 당시 시랑이었던 정경에게 강형수를 참소하고, 또 연마저 이 일에 연루시킨다. 결국 강형수는 정배를 가고 연은 심한 꾸지람을 듣게 된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아버지 정경과 장자

5) 이 두 작품이 연작의 관계에 있음은 이미 임치균, <유효공선행록>연구, 관악어문연구 14(1989)에서 밝혀진 바 있으며, 拙稿, “가문의식을 통해 본 한국고전소설의 구조와 창작의식-가문소설과 군담소설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99(1990)에서 가문의식과 관련된 전반적 문제를 다른 작품과의 관련하에 논의한 바 있다.

연과의 갈등이 표면화되며 급기야는 정경이 연을 廢長하고 홍으로 가문의 종손을 삼는다. 이후 연은 홍의 계교로 말미암아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한다. 그런데 역모에 가담한 홍의 참소로 연은 조주로 귀양을 가게 되고, 홍의 또 다른 참소로 인해 아버지 정경으로부터 자결하라는 서신과 칼을 받는다. 그러나 反賊에 의해 조주로 유배된 태자의 도움으로 홍과의 사이에 얽힌 그간의 억울한 사정이 밝혀지며, 정경 역시 이 일을 알고 前日을 뉘우친다. 이후 황제가 붕하고 태자가 등극하자 연은 이부상서로 발탁되어 反賊의 무리를 소탕하고, 홍은 유배를 간다. 그리고 연은 다시 장자의 위치로 복귀한다. 그러나 연은 그의 장자 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의 차자인 백경으로 양자를 삼아 계후를 한다. 여기에서 연과 그의 아들 우성 사이에 얽힌 부자갈등과 계후갈등이 다시 발생한다. 결국은 정경이 연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백경으로 종손을 삼게 된다.

〈삼대록〉은 뉴연이 최초의 가장으로 등장하여 〈선행록〉에서 거론되었던 우성과 백경 사이의 계후문제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백경과 우성 그리고 그들의 자손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는 위의 〈선행록〉에서처럼 형제갈등과 부자갈등에 이은 계후갈등이 작품 자체의 주제로까지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뉴우성의 차자인 세형과 세형의 차자인 현이 야기시키는 부부갈등이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삼대록〉에서도 백경이 우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성의 장자 세기를 그의 장자로 삼아 계후를 잇게 하고 있으며, 후에 이 일이 원인이 되어 백경의 친자인 세광과 세기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진다. 즉 세광이 그의 장자인 홍으로 계후를 삼고자 세기를 참소하고 급기야는 살해하려고 한다. 그러나 결국은 세기의 장자 건으로 계후는 이어진다. 따라서 〈선행록〉 〈삼대록〉은 장장 5대에 걸쳐 가문의 가장권을 사이에 둔 계후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것의 온전한 해결은 세기와 건에게 와서야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러면 〈선행록〉과 〈삼대록〉에서 설정된 종손의 맥락을 간략한 가계도와 함께 도표로 정리해 보자.



가문의식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宗家思想에 의한다면 가문의 계승은 원칙적으로 장자의 계열로 전승되어야 한다. 만약 종가에서 가문을 계후할 자손 특히 아들이 없는 경우, 부득이 양자를 입양하여 계후를 있게 한다. 이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의 계후는 종가에서 계속적으로 자손이 번성하여 양자의 입양이 필요없이 장자의 계열로 가계가 지속되는 경우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선행록> <삼대록>에서 정상적으로 계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위 도표상 [b] [e]의 경우이고, 나머지 [a] [c] [d]의 경우는 비정상적으로 계후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그리고 [b]의 경우 역시 비록 정상적으로 계후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장자가 廢長되었다가 다시 復長되는 경로를 거친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인 징후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계후를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물려주려는 뉴정경, 그리고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양자를 입양하여 이로써 계후를 삼고 있는 뉴연과 뉴백경의 행위는 물론 형제갈등과 부자갈등에서 기인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의 행위 속에 자신의 가문을 보다 잘 유지하기 위한 배려가 잠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자주의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우면서 확고한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조 사회에 있어서 父는 좁게는 한 가족을 넓게는 한 가문을 통치하는 통치권자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한 가문의 가장으로서의 父- 종손은 자신이 부여받은 가문 내에서의 절대적 권위를 바탕으로 그 가문조직을 통솔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책임을 지니게 된다.⁶⁾ <선행록> <삼대록>

6) 이에 대해서는 拙稿, 위의 논문 참조. 한편 이 작품들에서 설정되는 가문 이 몰락을 겪지 않고 권문세가의 위치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에는 가장이 가솔들에 대해 生死與奪權을 행할 정도의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것보다

이 계후의 문제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를 보이고 있는 이유 역시 부권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의미에서 찾아지거나와 이를 도표의 [c]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성이 비록 영민하나 너무 발호하여 공순훈 품이 적으니 만일 엄히 곱아치 아닌즉 함위던하경박조호리니 맛당이 사랑을 준결이 호실비오 또 큰 그르시아 니니 일업시 문한으로 소임케호시고 또 빅명의 총혜호미 제 아미게 누리지아 니나 너모 슈발호니 구든 품덜이 아니로더 빅경은 관후인조호여 소조소근이니 따음의 흠이호미 오린지라 맛당이 휘아의 조식을 삼아 우성의 독신을 선택호 고조 호느니 대인은 지삼 상양호사 지원을 조초쇼셔 품이 상서의 혈혈성을 보고 조못 감동호여 왈 (중략)지어계후일은 조식이 업스면 부득이 혼 일이니 엇 지 우성 그튼 괴자를 두고 다시 빅경을 생각호리오 상제 복더 왈 빅경이 크게 인후호여 종스를 죽히 밧드림 죽호니 조현의 조식이 곳 휘아의 조식이라 엇지 피츠 이시리오?

정경의 차자 흥이 역모사건으로 유배 갔을 때, 다시 장자의 위치로 복귀한 연은 백경의 인품에 반하여 그의 친자인 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경으로 양자를 삼아 가문의 적통을 물려주려 한다. 친자 우성과 姪兒 백경을 사이에 둔 연의 이같은 태도는 일차적으로는 우성과 백경의 성격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성은 전일 흥의 모함으로 출저당한 연의 조강지처인 정부인이 산중에서 낳아 데리고 온 연의 친자인데, 연은 애초부터 이 우성을 못마땅해 한다. <삼대록>에서 설정된 우성은 완전한 군자의 덕을 지닌 존재로 나타나지만 이 <선행록>에서 설정된 유아기의 우성은 방자한 성격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우성의 방자함은 우성이 부친 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조부의 허락으로 應科하여 장원급제를 하면서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한다. 우성은 니소저와 혼인후 니소저에 대한 色情을 이길 수 없어 15세가 되기까지는 부부합방을 금한다는 부친의 교훈을 어기고 니소저를 꺾박하며 폭행까지 한다. 또 장원급제 축하연에서 만난 찬향, 월섬이란 두 창기를 불러 희롱하다가 부모의 책망을 받지만 이후에도 교묘히 부모를 속여 계속 두 창기로 더불어

관련이 있는데, 이는 모두 계후갈등의 과정을 통해 수립된 부권의 확립이란 의미를 지닌다.

7) <선행록> 전집 16, pp.134-135.

회통하며, 한편으로는 니소저를 더욱 뵈박한다. 이 사건은 결국 연 자신의 말과 같이 우성이 비록 ‘英敏’하지만 너무 ‘跋扈’한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연이 장차 우성을 끝내 못마땅해 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성의 이같은 성격과는 달리 배경은 한번도 養父인 연의 命을 거역하는 일이 없고, 과거에 뜻을 두지 않는다. 또 친자가 그 인품을 알아 出仕를 재촉하여도 끝내 벼슬에 나아가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의 인품이 작품에서는 ‘寬厚仁慈’한 성격으로 설정되어 있거니와 계후에 대한 연의 태도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다. 즉 가문을 책임지우는 계후자의 선택에 있어 비록 친자가 있지만 그가 계후자로서의 올바른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자 평소 흠애하던 가문의 다른 자손으로 하여금 그 계후를 물려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계후를 들쭉 연의 이같은 태도는 계후자의 인품의 문제 외에 형제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미 연은 동생 흥과의 사이에서 심각한 형제갈등을 겪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자갈등은 물론이고 계후갈등까지 겪었던 것이다. 따라서 연은 차후 가문의 화목과 안정을 위하여 전일 자신이 겪은 갈등의 화근을 애초에 제거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흥이 너심의 승상이 빙경 계후호미 반다시 저을 폐하고 당을 복호미 비로소 조그 마음을 위로하는줄 알고 감동호나 마춤너 본습이 업지 못호야 일단 앙양 홀 뜻이 이시나⁸⁾

이에 대한 연의 심증이 작품에서 따로 서술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흥의 심중에 대한 위의 서술에서 연이 흥을 위로하여 형제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경으로 또한 계후를 삼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물론 형제갈등을 해소하려는 이러한 연의 태도는 다시 우성과 배경 사이에서 형제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단서로도 작용할 수 있다. <삼대록>에서 가문의 장자로 등장하는 배경이 그에게 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성의 장자 세기를 양자로 받아들여 계후를 잇게 함은 이미 연과 흥 사이에 발생했던 형제갈등을 짐작한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계후자의 선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형제갈등은 다시 세기와 배경의 친

8) <선행록>전집 16, p. 385.

자 흥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록> <삼대록>에서의 계후갈등은 친자라는 혈통보다는 한 가문의 종손 즉 계후자의 인품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계후자의 인품이 혈통에 우선한다고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가문조직 속에서 혈통의 정통성은 무시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품이 그 혈통의 정당성마저 무시하는 상식 밖의 계후갈등을 보여주고 있음은 가문 내에서 가장이 지니는 절대적 권력과 그 권력의 중요성을 그만큼 절실하게 인식한 결과이며, 나아가 가문의 화목한 유지가 친자의 정에 앞선다는 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선행록>에서 뉴정경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인데, 계후자가 비록 혈통의 정당성은 지니고 있지만 인품과 덕이 부족할 경우, 그가 행하는 절대적 권력이 그 가문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선행록>에서는 뉴정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뉴정경은 원래 인물이 편벽되고 인후한 덕이 없어 도리어 孝友寬仁한 연을 싫어하고 奸巧暗險한 흥을 사랑하는 인물로, 벼슬이 시랑직에까지 거하지만 흥의 참소만을 듣고, 연을 死地에까지 몰아 넣고 있는 事理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술한 가문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자 흥으로 장자를 삼고 연을 廢長하는 <선행록>에서의 계후갈등이 직접적으로는 정경의 이러한 편벽된 인품에서 말미암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록> <삼대록>이 부권확립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인품과 혈통을 둘러싼 계후갈등은 이 작품의 서두에 설정된 부정적 宗孫象인 뉴정경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의도를 또한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선행록> <삼대록>이 주요한 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권의 정당성 확립은 비록 그 양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군담소설에서도 나타난다. <선행록>과 <삼대록>이 부권확립의 과정에서 친자의 혈통보다는 계후자의 인품과 덕을 강조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면, 군담소설에서는 한 가문의 몰락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부권의 확립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군담소설에서의 父는 명문가의 후예로 설정되어 있지만 소설의 서두에서 사망하거나(<소대성전> <즈웅전>) 간신의 참소로 인해 유배를 당하거나(<유충혈전> <이대봉전>) 아니던 도적의 난을 만나서(<장풍운전> <장경전>) 그 가족과 헤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父의

잠적과 동시에 주인공의 가정은 파탄을 겪게 되며, 자식은 그 어머니마저 잃어 寄託할 곳이 없는 신세로 전락한다. 그러나 자식 즉 주인공은 원조자를 만나 성장하며, 자신의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에 공을 세우고 그의 가문을 구출한다. 바로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이 父의 위상에 따른 幸·不幸의 교차이다. 주인공의 시련기와 그 시련을 완전히 극복한 상태가 父의 有無 상태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도입부에서의 父의 잠적이 가정의 파탄과 주인공의 시련과 대응됨은 물론이고, 결말부에서의 모든 갈등과 고난의 해결이 父의 회복과 대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충렬전> <이대봉전> <장풍운전> 등의 경우 주인공은 잃어버린 父를 다시 찾지만, <소대성전> <조웅전>과 같이 이미 父가 사망한 경우는 이 과정이 없다.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는 주인공이 새로운 가장으로 부상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父의 회복이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전자의 경우 역시 주인공이 가문을 회복한 이후 자신이 실제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장으로의 부상이란 의미가 뒤따르고 있다.⁹⁾ 따라서 군담소설에서 설정되는 ‘父의 잠적과 가문의 몰락→父의 회복과 가문’의 과정은 바로 부권의 확립이란 의미를 지닌다. 이때 새로운 부권은 기존의 부권에 대한 반항이나 저항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세대교체 내지는 영락해가는 기존의 부권에 대한 보완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이 친부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기존의 父가 바랬던 방향으로—가문의 회복이라는 방향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군담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9) <장풍운전> <장경전>의 경우 주인공이 得賣하고 아버지를 찾고난 이후 妻 妻 혹은 妻妾간의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는데, 주인공의 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중재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있으며, 遠征 나간 주인공이 돌아 와서야 해결이 된다. 이러한 모습은 수평적 갈등의 해결에 있어 그 위 세대의 역할이 절대적인 <현씨양옹쌍린기>나 <조씨삼대록> 혹은 <삼대록>과 상이한 양상이다. (<조씨삼대록>에서 보이는 초세대의 갈등중재에 대해서는 趙鏞豪, <조씨삼대록>연구, 서강대책사논문(1988) 참조.) 한편 이창헌, “혼사장애의 측면에서 본 고전소설의 도입부와 결말부”, 관악어문연구(1990)에서는 혼사장애가 가문존속의 절대적 위기인 도입부에서 절손의 위기 혹은 자식의 결핍에서 결말부의 자식의 풍요로 나아가기 위한 장애이며, 따라서 부자라는 수직적 가족관계의 장애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데, 이 역시 새로운 부의 탄생이라는 의미와 연관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결국 군담소설이 일반적으로 지니는 주제의식인 상층으로의 신분상승 혹은 失勢回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조선조 사회의 현실원칙 속에서 상층으로의 신분상승 혹은 그 신분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 가문조직이었고, 아무리 능력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가문의 세력이 없이는 과거급제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¹⁰⁾ 때문에 상층으로의 지향의식을 표방하고 있는 군담소설이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행록> <삼대록>에서의 계후갈등을 통한 부권의 확립과정은 이미 군담소설의 부권확립 단계를 거친 다음에 발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가문의 기틀이 마련된 상태에서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혈통에 앞서 계후자의 자격을 앞세우는 관점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갈등을 통해 등장하는 계후자(중손)들은 모두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나아가 이를 통해 드러나는 세계관이 이들 작품의 비정상적 계후와 연관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는 다음장의 과제이다.

3. 宗孫의 맥락과 성격

<선행록> <삼대록>에서 설정되어 있는 중손의 맥락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뉴정경——뉴연——뉴백경——뉴세기——뉴건

여기에서 뉴정경은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인물이 猜險하고 편벽되어 부정적인 중손의 모습을 보였고, 이에 <선행록>과 <삼대록>에서는 정경과 같은 중손의 전철을 밝히 않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삼대록>의 마지막에 설정된 뉴건에 대한 행적은 작품에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선행록> <삼대록>에서 긍정적으로 강조되는 중손의 맥락 곧 장자의 맥락은 뉴연—뉴백경—뉴세기임을 알 수 있다.

뉴연은 <삼대록>에서는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선행록>에

10) 이에 대해서는 宋俊浩, 朝鮮社會史研究(일조각, 1989) pp. 450-474.

李成茂, 한국의 과거제도, 춘추문고 19(1976) 참조.

서는 관후인자한 군자의 모습을 온전히 지닌다. 특히 연이 유배를 간 조주에서의 그의 치적은 이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비록 역적으로 참소당하여 유배를 갔지만, 유배지 조주에서 연은 덕으로 一邑을 감동시킨다.

우으로 티수와 아기로 스린 다 스승네로 밧들고 쯤 경성에서 강심이라 호는 선비 느려가 호시의 지귀친봉이 되였고 명부인이 난향으로 더브러 쫓아가 친이 최조를 키야 부도 다스리미 각결의 부부 쯤다 호여 군민 스터뵈 불승츄앙호니 임의 교화 나트나미 도주 일읍이 다 흠양호여 남너귀천이 직분을 일는 비업서 일코르니 일주의 명망이 7득호더이다¹¹⁾

연은 한번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일이 없이 자신의 덕으로 인근 백성들을 교화하며, 그에게 학문을 배우러 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연의 이러한 덕행은 그가 후에 조주를 떠났을때 그곳 선비들이 그의 덕을 추앙하여 효문공(연의 諡號)서원을 차려 공경을 하고 있을 정도이다. 뉴연의 이러한 인품이 친자의 정마저 저버리고 양자인 백경의 인품을 공경하여 그로 하여금 계후를 잇게 하고 있거니와 백경 역시 이러한 연의 덕을 그대로 이어 나간다.

백경은 현명군지라 (중략) 효우훈 맑은 도덕이 선공의 자취를 니어 훈 거름도 네 밧기 업스니 도애 흠양호고 현지 여러순 청현화적으로 브르시고 지상이 즈루 천거호더 경심이 이서 종시 환노에 나가디 아니호니 이 경히 괴산영슈의 높은 자취를 쫓오는다라 현지 공경호샤 도호를 운슈선심이라 호시고 스림의 웃음을 삼으시니 준룡호심과 스셔의 우릴미 왕공의 우히러라¹²⁾

백경은 일생 동안 한번도 벼슬에 나가지 않는 청덕을 지닌다. 그는 과거를 치르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친자의 부름에도 끝내 환로에 나가지 않아 천하 사림의 존경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이로 볼 때 연과 백경은 화려한 出將入相보다는 학문을 공경하고 修身을 무엇보다도 힘써는 道學의 길에 경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은 비록 벼슬이 승상의 위치에 거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의도는 아니었다. “몸이 스림의 괴췌 되었는지라”에서 보이듯이 연은 도학을 일삼는 사림의 우두머리에

11) <선행록> 전집 15, pp.339-340.

12) <삼대록> 총서 4, p.44.

쳐하였고, 백경 역시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한편 우성의 장자로 백경에게 입양되어 계후를 잇는 세기는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성의백에까지 거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 역시 연과 백경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다.

성의백이 본디 겁퇴공겸하여 부동이 너모 성만학을 두려 그 조너 구인을 교훈을 각별 업히하여 제직 나히 심세된 즉 산곡의 어딘 스성을 골하여 슈혹계하고 금의와 진미를 몸의 나오디 아냐 구복의 족디 못하고 조흔소빙은 선왕의 법이 아니라 하니 제조를 다 이십이 된 후 성흔하디 문지를 골필 디언뎡 궁달을 골려지 아냐 산인쳐사의 무리로 결혼하고 조부의 치장이 형초포군이오 제직적학과 풍신이 특이하디 조달은 조물의 끄리는 비요 칭운은 성정을 그릇 윈드는 문이라하여 자기 보물허티 아니터니 도부인의 권유하를 조차 마디못하여 당조건을 파거 보기를 허하니¹³⁾

자식의 교육을山谷의 선생에게 부탁하고, 나아가 혼인까지 산림처사의 무리들과 한다는 점, 그리고 칭운은 성정을 망치는 길이라 하여 자식들에게 과거를 금하고 있는 이러한 세기의 태도는 비록 그가 환로에 나아간 적은 있지만 정작 본심은 도학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는 벼슬이 성의백에 처하여서도 항상 겸소하고 색욕을 멀리하여 유씨가문의 諸子들 중 일생동안 한명의 첩도 없이 살았던 유일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런 세기의 태도 역시 백경이나 연과 마찬가지로 천하 사림의 추앙을 받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선행록> <삼대록>에서의 종손의 맥락인 뉴연—뉴백경—뉴세기의 행적은 한결같이 환로를 찌르고 도학을 숭상하여 천하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그런데 종손의 이러한 행적은 작품에서 차자들의 행적과 뚜렷히 대별되어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선행록>과 <삼대록>에서의 차자의 맥락 즉 뉴우성—뉴세형—뉴현의 행적은 위장자들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성의 경우는 연의 장자이지만 그 영민발호함으로 인해 백경에게 장자의 자리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차자의 위치에 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세형은 세기의 친동생이고, 현은 세형의 차자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 성격이고

13) <삼대록> 총서 5, pp. 583-584.

집이 세고 편벽되어 <삼대록>에서 온갖 사건을 유발시키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세형은 그의 형 세기의 은화관대함과는 달리 고집이 많고 편벽됨이 있는 호탕한 기질로 진양공주와 장소저 사이의 사건을 비롯하여 세字行列의 형제 중에서 안팎으로 가장 많은 일을 빚어내고 있는 인물이다. 또 세형의 차자 현도 그의 형 관의 관후함과는 대조적으로 방자 호일하여 설부인과 장설혜 사이의 사건을 비롯하여 세형 못지않게 많은 일을 빚어내고 있다. <삼대록>의 분량으로 따지자면 이 두 사람의 고집과 호방한 성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 작품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이다.¹⁴⁾ 그러나 이들도 장성하여 종손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가정을 지닌 가장의 위치가 되면 서서히 연—백경—세기의 모습을 닮아간다. 우성과 세형이 북방을 振武한 공으로 각각 공후와 왕작을 제수받자 이들은 그 작위의 호화함으로 인해 사립의 戲弄과 후세의 是非를 받을 것과 문호에 화가 미칠 것을 걱정하여 벼슬을 사직하고 은둔의 길을 떠나려 한다. 또 현도 벼슬이 후작에 거하던 중 국가가 요란하자 “문호를 보전하고 형제 휴슈하여 경년에 니별이 업게 하미 상책이라”¹⁵⁾는 형의 말을 듣고 “우리 선군과 선비의 유괴 다 승습할 것거 아니시더 형제에 잇글녀 마디못하여 뜻을 세우디 못하였더니 이때를 타 물너가미 맞당하도록 소이다”¹⁶⁾라고 하면서 벼슬을 사직하고 명철보신의 길로 접어든다. 따라서 처음에는 종손들이 보여주었던 성격 및 행적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지녔지만 이들 역시 점차 그 종손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록> <삼대록>은 도학을 피하는 사립의 모습을 종손으로 설정하여 이를 그 가문의 家風으로 삼고 있으며, 또 이 家風과는 대조적인 차자의 맥락으로 하여금 다시 家風을 계승하는 행적을 설정함으로써 그들 가문이 바라는 부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혈통보다 인품을 강조하였던 계후갈등은 그들 나름대로의 家風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14) 이 작품이 또 장자의 맥락과는 달리 차자의 맥락을 한결같이 이런 성격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사건을 유발하고 있음은 소설이 지니는 오락성 혹은 흥미의 요소를 인식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5) <삼대록> 총서 6, p.516.

16) <삼대록> 총서 6, p.517.

그런데 이미 종손의 맥락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지듯이 이와 관련하여 조선조 산림의 세계관과 그 존재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산림 혹은 사림이라는 용어가 종손의 행적에서 자주 보이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 대하소설의 작자층에는 상층별열이 포함되며¹⁷⁾ 17세기 이후 조선조의 정권을 주도한 상층별열이 이 산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조 사회에서 산림은 단순히 운둔하는 선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였다. 그리고 이들 산림은 조선조에서 주자주의의 상징적 존재였음은 물론이고 禮學의 부흥에 따른 가부장제 및 가문조직을 강화시킨 장본인들이었다. 한편 이들은 향촌에 거하면서 서원을 만들어 많은 문생들을 배출하였는데, 이 서원은 가문과 더불어 그들의 세력기반으로서의 구실을 하기도 하였다. 원래 이 산림이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시골에서 講學하는 도학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이들이 국가로부터 徵召를 받아 온갖 特待를 향유하면서부터는 국가로 부터 정소를 받은 특정인사들에 대해서만 이 산림이란 칭호를 붙이게 되었다.¹⁸⁾ 이들은 인조대부터 대거 정소되어 정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왕자의 유현동용이라는 유교적 명분과 아울러 국왕과 집권세력이 이 산림을 통해 그들 정권의 명분을 얻으려는 의도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¹⁹⁾ 이를 위해 인조는 ‘司業’이라는 산림을 위한 특별직까지 새로 마련하고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이들 산림은 국왕의 정치 자체에 명분을 부여할 수 있을 만큼 주자주의 이념의 실현에 대한 상징적 존재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 <선행록>과 <삼대록>이 산림을 굳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산림이 당대의 주자주의의 상징적 존재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자주의를 표방하는 작품이 산림의 존재를 부각시킴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에선 조선조 소설의 장르적 특징과

17) 李相澤, 朝鮮朝 大河小說의 作者層에 대한 研究, 한국고전문학연구 3(1986) 참조.

18) 산림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李佑成, “李朝儒教政治와 山林의 존재 韓國의 歷史像(창작과비평”, 1982) 禹仁秀, “17세기 山林의 進出과 機能” 역사교육논집 5(1983)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19) 禹仁秀, 앞의 논문

관련된 보다 주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논하기로 하자.

4. 증손의 행적을 통해 본 창작의식

〈삼대록〉에서는 증손들이 지니고 있는 산림의 모습과 연관하여 봉당론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조정에서 봉당과 비봉당을 둘러싸고 양증기와 이동양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자 우성은 비봉당을 주장하는 양증기의 편을 든다. 양증기는 뒤에 효문공 연과 같이 효문공 서원에 배향되는 인물로, 연이 조주로 정배갔을 때 연을 여러모로 도와준 인물이다. 양증기는 이동양이 당을 모은다는 이유로 상소하였다가 도리어 이동양의 참소를 입어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성이 양증기의 편을 들었다가 우성 또한 이동양에게 참소를 당하는데, 이에 연은 이동양이 봉당을 체결한다는 양증기의 상소가 진실임을 밝혀 양증기를 위기에서 구한다. 한편 유씨 가문의 모든 자제들은 이러한 교훈을 이어받아 “한줄마치 통효로 본을 삼고 당을 모흐디”²⁰⁾ 앎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작품에서 설정된 國論이 봉당의 체결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한다면, 이 작품에서는 비봉당론을 國論 및 家風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조선조 사회에서 이 봉당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영·정조대에 있었던 탕평책에 대한 논의가 그것인데, 이 과정에서 산림의 무리들은 봉당을 만들어, 당쟁의 근본적인 원인인 ‘自作義理’를 조장한다고 하여 緩論탕평을 주장하는 집단에 의해 혹심한 비판을 받는다.²¹⁾ 완론탕평의 이 주장은 그 기본원칙에 있어 朱子の ‘君子黨’과 ‘小人黨’의 구별에 대한 是非를 없애자는 것으로 왕권강화를 꾀하려 했던 영조에 의해 받아들여졌다.²²⁾ 그 결과 이에 대해 강한 반

20) 〈삼대록〉 총서 6, p.137.

21) 噫彼東西 起於郎通 噫彼大小 分於義理 噫彼南西 激於禮說 噫彼老少 痛於斯文 一轉再轉 三轉四轉 初即互相斥以賢邪 末即互相加以忠逆 釀成千古所無之戍申亂逆 英祖實錄 卷 103, 英祖 40년 5월 丁丑條.

22) 朴光南, “蕩平論과 政局의 變化”, 한국사론 10(1984) 참조.

발을 보였던 산림들은 해직되거나 유배를 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주로 노론계 산림—들은 영조의 이러한 조치에 심한 반발을 보였다. 즉 色目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는 영조의 탕평은 ‘是非’ ‘君子小人’을 구별하지 않아 ‘名教’와 ‘公義’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봉당의 폐보다 더 큰 폐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정조로 하여금 ‘執淸議 持峻論’을 내세우고 義理·淸議·名節을 궁구하는 峻論 탕평을 실시하게 하였다.²³⁾ 조선조 자체가 이미 義理名分을 앞세우는 주자주의를 그 통치이념으로 하고 있었던 만큼 완론탕평에 대한 정조의 이같은 정책수정은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조 역시 영조에 이어 강력한 왕권강화의 의지를 표방하였던 만큼 더 이상 산림의 주자주의적 권위에 위축될 수 없었다. 왕권에 대해 산림이 지니는 주자주의 이념의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조는 계속 산림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조선의 중앙 학제는 산림, 유림의 학문주도에서 국왕과 그의 측근 학자군의 주도로, 그리고 학문적 성격면에서는 완고한 주자주의의 義理名分論에서 점차 탈피하게 되었다.²⁴⁾ 물론 이 과정이 산림을 완전히 일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도 정치의 기반을 다지게 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지만 많은 산림이 중앙으로부터 축출되었으며, 義理主人으로서 世道之任을 담당하였던 산림의 본래의 권위와 지도력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었다.²⁵⁾

그런데 <삼대록>에서 나타나는 비봉당의 견해를 완론탕평의 주장과 대응시켜 볼 수 있을까?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즉 비봉당의 견해는 喬木世家와 산림의 세력을 견제하여 왕권신장을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교목세가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고 나아가 종손의 행적을 통해 산림의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삼대록>이 비봉당을 고수하는 것은 역사적 실상과는 어느정도 모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대록>에서 주장하는 비봉당의 견해를 완론탕평에서처럼 ‘군자당’ ‘소인당’의 구별을 일소하려는 식의 논리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이

23) 朴光南, 위의 논문 참조.

24) 유봉하, “18·9세기 老論學界와 山林”, 한신대논문집 3(1986)에서는 정조가 산림을 견제하고자 친위 학자군을 양성하였으며, 그 학문적 풍토 역시 醜正 朱子學의 학문관에서 이탈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25) 유봉하, 위의 논문 참조.

붕당에 얽힌 작품의 실상을 살펴보자.

양어서 현성이 강적하여 권귀를 뒤흔기며 원수又촌고로 각노 니동양이 소인의 뜻이 있다 논학하니 니각너 대로하여 문하 당뉴를 그르쳐 양 어스롤 논박하고 도명을 괴롱혼다 하니 (중략) 상세 지빅고두 왈 타시아니라 좌부도어스 낭중거는 대신을 궤방하고 도명을 괴롱혼 죄목으로 주륙을 당케되니 등거 진실로 도명을 괴롱혼 죄이시면 폐해 비록 죄롤 느리오디 아니시나 신등이 었디 묵연이 괘시 하리잇고 등거 위인이 퉁군이군지심이 빅일의 일명하염죽 혼고로 상소롤 하여 궤발뒤축을 쓰라니어날 줄을 아르던 죽기롤 가빅야이 녀이고 국가를 등허 녀이는 재 초인이어늘 간신의 춤소롤 드르샤 직신을 해코져 하시니 신이 부월을 두리지 아니하여 몸숨을 올니고 스회롤 청하노이다.²⁶⁾

이동양은 권력을 탐하여 붕당을 체결하여 조정을 전권하려는 간신으로, 양증기는 권력을 멀리하고 竭忠愛國하는 直臣으로 규정되고 있다. 결국 이 <삼대록>에서 보이는 붕당을 둘러싼 논쟁은 붕당이 권력을 탐하는 과정으로 나타나며, 유씨가문이 가풍으로 규정하는 비붕당은 청렴한 군자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디까지나 명절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에서 산림들이 탕평을 반대한 이유가 淸議·義理·名節의 주자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돌이켜 볼 때, <삼대록>의 이러한 모습은 그러한 주자주의를 강조하는 조선조 산림의 모습과 유사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의식은 <선행록> <삼대록> 전체를 이끌어 가는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데, 가령 2장에서 살펴본 계후갈등의 해결과정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친자가 다른 가문원들의 명망뿐만 아니라 조정에서의 명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양자를 입양하여 계후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義理名分論의 의식의 일면이다. 즉 계후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권을 부여하는 의미를 지니는 만큼 친자의 혈통에 앞서 그 의리와 명분을 먼저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우성은 <삼대록>을 통해 탁월한 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일시 방자한 성격과 연의 흥에 대한 우애로 인해 계후 자리에서 밀려났고, 세기는 그가 우성의 장자라는 이유로 의해 계후자로 채택될 수 있었다. 소현세자가 죽자 새로운 세자로 책봉된 봉림

26) <삼대록> 총서 4, p. 40.

대군이 효종에 즉위하였고, 그의 사후 長子の 服色에 대한 명분을 따지는 남인과 서인간의 禮訟논쟁이 있었거니와 <선행록> <삼대록>은 계후의 책봉을 놓고 명분을 논하는 갈등을 작품 전반에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선행록> <삼대록>은 초월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여타의 다른 작품과는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이러한 명분론과 연관관을 맺는다. <선행록>에서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지만 <삼대록>에서는 진양공주의 신이한 예견과 우성, 세형 등이 별을 보고 앞일을 예견하는 장면이 많이 보이고 있다. 가령 세형의 부인이 된 진양공주는 자신이 일찍 죽으면서 두 封의 편지를 남겨 훗날 일어날 국가의 화를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삼대록>에서 이러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완강히 불교를 배척하는 의식 또한 보이고 있다. 불교는 흔히 고전소설에서 신이한 모티프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장치인데, 여기에서는 완강히 배척당하고 있는 것이다. <삼대록>에서 불교는 진양공주가 “유풍을 상히오고 눈을 멀흐니 신의 소업은 유되라 더입의 길이 다르니 서로 통하여 무르미 가티 아난디라 신의 힘이 덕어 능히 턴하불법을 전제티 못흐고 지친간 이런일이 이서 성덕치화물 산히오니 크게 붓그려 호음느니 거느린 비즈로 호여곰 통하여 공문의 혹을 육호리”²⁷⁾ 있다고 천자에게 諫한 후, 불교는 나라에서 금하는 바가 되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신이한 행적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진양공주의 死後 그에 대한 행장을 지을 때, 진공 세형의 태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계공이 홀기지로 윤식하여 마츠매 성의빅을 주고 다시 진양공주 흰적을 하태 휘 공주초상의 괴록하여 누리와 계시티 공이 그 너모 신귀하여 사롬이 밋디 아닐가 집히 너히 내지 아났터니 이날 공주 하가호후 성덕 스프나론 도전을 괴록하고 평일 신명호거슬 싸혀 진후를 주어 알 네 모비의 평일힘스를 다호죽 후세 의심을 니르려 찬집흔 사롬이 허탄호를 먼티 못흐고 공귀 괴소를 마드러니 내 그 동도로 현칭을 괴록하고 신귀호 거슬 싸히느니 네 맛당이 홀조를 더어 죽은 부모로써 시비를 날위디 말디어다.²⁸⁾

비록 신이한 행적이 많았고, 세형 자신도 그러한 능력을 어느정도 지

27) <삼대록> 총서 6, p.31.

28) <삼대록> 총서 6, p.433.

니고 있지만 그것이 허탄하다 하여 후세의 회통을 들을 것이라는 세형의 견해이다. 따라서 이 〈삼대록〉은 비록 신이한 장면을 지니고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궁극적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삼대록〉의 이러한 모습 역시 종손의 맥락을 통해서 본 완강한 주자주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선행록〉 〈삼대록〉이 보여주는 산림의 의식은 탕평책의 실시과정에서 義理名分을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탕평을 반대했던 산림일군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탕평책의 과정을 통해 명분론을 고수한 많은 산림들이 중앙에서 밀려나야 했으며, 나아가 정조대를 거치면서 산림의 학문의 기반과 그 정치적 영향은 약화되었거니와 이 작품이 굳이 이런 산림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이제 중앙으로의 진출이 예전처럼 되지 않고 그 학문적 풍토마저 변화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은거할 수밖에 없었던 일부 산림세력들은 향촌에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가문을 기반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서원을 기반으로 그들의 뜻을 모색하였는 바, 소설창작 역시 이러한 산림들의 심회풀이로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충벌열에게 있어서 이러한 소설의 창작이 결코 부정적이지는 않았는데, 洪羲福의 〈第一奇譚〉序에서 보이듯 설사 그들이 상충으로의 상승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군담류는 배척했을지언정 성정의 교화를 위한 교훈적 의도를 지닌 소설은 오히려 그 장점을 인정했다.²⁹⁾ 따라서 이 〈선행록〉 〈삼대록〉이 부권의 확립을 통한 가문조직과 義理之學의 주자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은 조선조에 있어 소설이 지녔던 교훈적 기능과 아울러 비록 사대부일지라도 작자 자신에게 소설이란 장르가 결코 가벼운 장르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했듯이 이 〈선행록〉 〈삼대록〉은 가장권에 대한 부권확립을 바탕으로 그 종손의 행적을 통해 조선조 산림의 義理之學의 주자주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여타의 소설들과는 달리 초월적 세계에 대한 관심 역시 어느정도 후퇴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결국 조선조의 소설을 반드시 근대라는 시대적 산물로서만 치부할

29) 拙稿, 위의 논문 4장 참조.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즉 흔히 서구의 이론이 말하고 있듯이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아무리 근대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조선조 소설 중에는 그것을 통해 오히려 변화 이전의 세계 가령 의리지학을 강조하는 주자주의 이념의 세계로 돌아가려는 보수적 성향을 지닌 작품 역시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조선조 소설에는 근대에 부응하는 일련의 작품군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반대되는 작품군 역시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양상은 조선조 소설이 지닌 오락성과 교훈성이란 양면적인 문제³⁰⁾, 나아가 조선조에서 소설이 지녔던 보다 특수한 장르적 의미가 무엇이었나에 대한 질문을 던져준다.

5. 결 론

본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선행록> <삼대록>을 중심으로 소설에 나타나는 가문의식과 부권에 대한 인식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 가문에 있어서 부권의 확립 여부는 곧 그 가문의 유지 및 번영의 여부와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고, 또 <선행록> <삼대록>에서와 같이 설정된 가문이 몰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부권은 그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한편 <선행록> <삼대록>은 일관된 종손의 성격과 행적을 통해 산림의 의식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선조 주자주의의 상징이었던 실제 산림들의 의식과 유사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즉 계후갈등, 봉당론에 대한 견해, 초월적 세계에 대한 견해, 혼인관 등을 통해 끊임없이 義理名分을 주로 하는 주자주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록> <삼대록>의 모습은 조선조 후기 정조대를 거치면서 그 영향력이 약화된 산림들의 심회를 표출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이 <선행록> <삼대록>은 주자주의의 명분론적 입장에서 부권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그런 만큼 산림의 의식과 유사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앞으로 이 논의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30) 拙稿, 위의 논문 4장 참조.

의 양상이 그 작품의 현실인식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폭넓게 고찰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 잠시 언급했거니와 상충으로의 상승의지를 표방하는 군담소설의 경우는 부권의 정당성 여부보다는 새로운 부권의 성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한편 〈현씨양옹쌍린기〉와 같은 작품은 설정된 가문이 권문세가를 고수하면서 이미 부권이 확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선행록〉 〈삼대록〉에서처럼 부권의 정당성에 대한 갈등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수평적 갈등이 작품의 전구조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수평적 갈등의 강조와 부권에 대한 갈등의 稀釋은 서로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가? 또 〈홍길동전〉같은 작품은 부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설정하고 있고, 〈옥주호연〉 〈장백전〉의 경우는 부권의 不在현상을 보인다. 이 작품들은 기성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 미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와 부권 자체의 稀釋化는 또 어떠한 연관을 지니는가? 결국 父에 대한 이러한 단편적인 생각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될 때 비로소 父와 가문과 소설의 관련성 문제 나아가 가부장제와 소설의 관계에 얽힌 문제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기로 하겠다.